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앞장'

도교육청, 올해 139개 학교 '어울림학교' 지정·운영... 내년 147개교로 확대

통학 편의 제공·복식학급 해소 위해 정규 교원 배치... 학생 체험활동 기회 제공

출생률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도내 학교 전체 788개교 중 310개교인 40.4%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어울림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울림학교는 2014년 동일 시·군내에서 수용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1개교에 대해 규모가 큰 학교와 공동통학구를 지정, 작은 학교로의 학생 전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시

작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형태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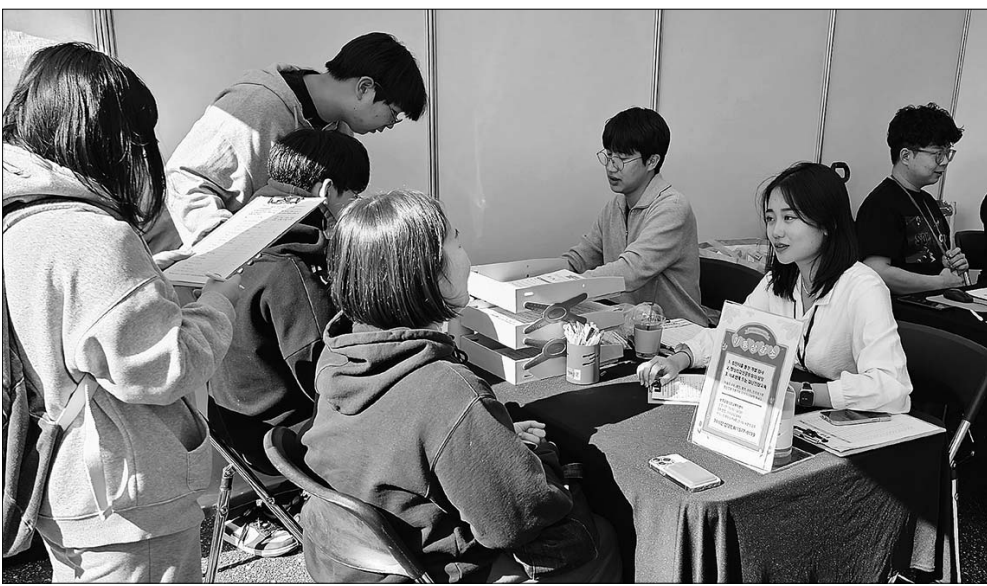
2023년 현재 139개교가 어울림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47개교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 시·군내 공동통학구유형에서 추가로 2024년부터는 시·군 간 경계를 허물어 광역형 어울림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을 배치했다. 또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어울림학교 운영 관련 자체평가에 따른 성과 공유를 실행, 이를 통해 정책의 확산 및 추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공동체 만족도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최저 4.1에서 최고 4.89가 나왔다. 또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변화 부분에서는 4.08에서 4.87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동통학구형이 4.49에서 4.89의 결과가 나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전북지역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춘 씬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일원에서 첫 행사가 열렸다

도내 청년들에 취업 의욕 회복 기회 제공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청춘 씬표' 운영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전북지역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춘 씬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춘 씬표'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5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행사에 5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마음진단 및 마음힐

링 프로그램, 스트레스·우울증 검사, 아로마 향수 및 디퓨저 제작 등이 진행됐다.

오는 18일 진행될 '씬표 붙'은 생명지킴이 대한 특강이, 11월 1일 '씬표 세'는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이 마련됐다.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063-290-1951)

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청년노동시장 침체로 인해 힘겨워하는 미취업 졸업생과 예비 졸업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심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의욕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다양한 마음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영재교육원 수료식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원장 김평)은 최근 교내 황학학당에서 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의적 표현과 글쓰기(34~6), 영어(35), 과학(35), 과학(36), 소프트웨어·인공지능(35), 소프트웨어·인공지능(36) 총 6개 영역에서 당초 입학인원 88명 중 87명이 수료해 99%의 이수율을 달성했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영역별 공개수업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적 탐구 능력을 보여줬다.

김평 원장은 "영재교육원에서 배우고 익힌 영역별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더 많은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발휘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준 총장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놀이의 탐구'...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12월 12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이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탐구해 보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12일 과학교육원에 따르면 이날 '시와 함께 Let's Play! 놀이의 탐구전'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12월 12일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계속된다.

특별기획전 '놀이의 탐구'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놀이'의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의 과학적·사회적·인류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양한 놀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재발견해 보는 전시다.

특히, 놀이의 민족·놀이와 규칙·놀이와 예술·놀이의 미래 4개의 공간에 추어 속 놀이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스포츠, AI와 함께하는 미래의 놀이 등을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며 짜릿한 승리의 경험을 느껴보고, 내가 좋아하는 놀이의 유형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별기획전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매일 6회씩(각 회당 45분 체험)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10명 이상 단체 관람인 경우 과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김정옥 원장은 "놀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필요할 행위"라면서 "특별기획전을 통해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워진 놀이를 체험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어 학생수 변화 면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전체 학생수는 20만 3,148명에서 18만3,615명으로 9.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율은 15.9%(2만603명→1만7,337명)에 비해, 어울림학교를 운영한 125개교의 경우 2019년 8,012명에서 2023년 7,333명으로 8.5% 감소해 학생수 감소를 완화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교육청의 어울림학교 운영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더불어 지역소멸을 방지해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농어촌학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 발달로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유·초등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7.9대 1

도교육청, 2024학년도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이 7.9대 1로 집계됐다.

12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18명 모집에 41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초등교사는 41명 모집에 89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5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7대 1, 초등교사는 공립이 13명 모집에 68명(사립 동시지원 포함)이 지원해 4.8대 1, 사립은 3개 법인 4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해 3.8대 1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3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의 교육소식, 초등 임용시험계시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콘텐츠 기업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1일 P아트홀과 예술관 일대에서 콘텐츠 기업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업난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퍼스텔미디어, 토스트에 니메이션스튜디오, (주)원웨이브, 스타라이크, (주)인포커스, 액티부(주), 텔러즈 주식회사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AI기술설명회, 현장 면접, △현직자 직무 멘토링 △청년 고용정책 홍보 등 취업·채용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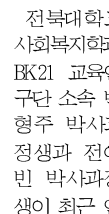
특히, 프리루서, 프로그래머, 영상 제작 등 총 12개 직무의 현장 면접이 진행, 기업과 학생 요구에 맞춰 전북지역 콘텐츠 기업의 채용정보 등 현직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였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배하늘(스마트미디어학과 4년) 학생은 "전북에 수많은 콘텐츠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특히, 현장 면접을 통해 현직자에게 얻은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제학회 최우수논문상 '영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박형주·전예빈 박사과정생



박형주

전예빈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교육연구단 소속 박형주 박사와 전예빈 박사과정생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국제행위중독학회에서 각각 최우수 포스터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에서 박형주 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로 도출된 이질적 변화 양상에 따른 다차원적 폐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변화 양상이 5개의 잠재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잠재 성장계층에 따라 신체발달, 심리정서, 정신건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검증했다.

또한 전예빈 박사과정생은 논문을 통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安寧感)을 낮추며, 그 경로를 사회적

고립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윤명숙 사회복지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은 "세계적인 중독 분야 학회에서 우리 학과에서 두 명의 대학원생이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성과는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역사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대학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지역이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고등부 선수들, 전국체전 출전

13~19일 전남 일원서 개최... 전북지역 45개 학교 437명

전북지역 고등부 학생선수 437명이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12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13~19일 7일간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도내 45개 고등학교에서 437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한다.

전북 고등부 대표선수단은 정식 47개, 시범 2개 등 총 49개 종목 중 35개 종목에 도전한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대표선수 참가비, 특별훈련비 등을 지원해왔다. 전북 고등부 선수단은 레슬링, 육상,

배구, 핸드볼, 농구 등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체육의 요람이자 역사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부 대표선수단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면서 "체육영재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내 고등학교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5개 등 모두 62개의 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학생, 미래 향해 도전

14개 학교 74명, 충남 개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을 펼친다.

12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충남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지역 14개교 74명이 참가한다.

이 대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등 4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들은 전북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로, 자동차 정비·용접·산업용 드론

제어·CNC밀링·자동차체수리·요리 등 25개 종목에 출전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상금(금메달 1000만원 등) 지급, 산업기사(동일·유사 직종) 실기 시험 면제, 2024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발전 출전(상위 1~2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 청의인재교육과장은 "국내 최대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중심 과학탐구 활동 지원

오늘 '지능형과학실 ON' 활용 연수... 교원 등 13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능형 과학실 ON' 활용 연수로 학생중심의 과학탐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온라인 탐구활동이 가능하고, 실감형 콘텐츠·시뮬레이션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축해 있다.

이강 청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생중심 과학탐구 역량을 함양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날 연수는 '지능형 과학실 ON' 활용을 안내하고, 학교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플랫폼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해 11월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를 찾아가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 청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생중심 과학탐구 역량을 함양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